

No.77  
July 31 2019

월간

# 극지해소식

**북극 소식** 북극이사회/국제기구  
북극국가 정책  
북극비즈니스/북극해항로/자원개발

**남극 소식**

**이슈 분석**

본 소식지는 '북극권 해양수산 협력기반 강화사업'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게재된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수** 최재선 명예연구위원  
▶ 연락처 : 이슬기 051)797-4768(sjglee84@kmi.re.kr)  
**책임** 김민수 극지연구센터 센터장

**작성** 김지혜, 이슬기, 김지영, 조용성, 이창주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북극소식

### 북극이사회/국제기구



#### 아이슬란드 의장국, 첫 북극이사회 북극 고위급 관리 회의 개최 (2019.6.28.)

아이슬란드가 의장국이 된 이후 첫 북극이사회 북극고위급관리(SAO) 집행위원회 회의가 6월 18~19일까지 이틀 동안 아이슬란드에서 개최됐음. 이 회의에는 8개국 북극고위급관리와 상시 참여단체 대표,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대표들이 참여하여 아이슬란드 의장국의 우선순위 과제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 논의했음.

아이슬란드 의장국이 추진하는 주요 우선순위 과제에는 해양쓰레기에 대한 대응이 포함되어 있음. 전(前) 북극이사회 사무국장을 플라스틱에 대한 특별조정관으로 임명하고, 플라스틱 위협에 대한 국제심포지엄과 북극해양장관회의 개최를 추진 중임.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대표들은 회원국과 상시 참여단체에게 워킹그룹의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했으며, 워킹그룹 의장 및 사무국장들은 SAO 의장과의 별도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했음.

차기 SAO 집행위원회 회의는 2019년 11월 크베라게르디(Hveragerði)에서 개최될 예정임.

(<https://arctic-council.org/index.php/en/our-work/2/8-news-and-events/527-first-meeting-during-iceland-s-arctic-council-chairmanship>)

#### 북극경제이사회, 북극 연결성 개선을 위한 5개 핵심 사안 소개 (2019.7.18.)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연결성이 매우 중요하나, 북극은 낮은 인구밀도, 혹독한 기후, 낮은 고속 통신망 도입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

북극경제이사회 연결성 워킹그룹이 북극에서의 연결성 관련 도전과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5개 핵심요인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음.

핵심요인 1) 투자 - 범 북극 해결책을 개발하여 통신제공업체가 다양한 지역요소들을 고려한 최적의 기술을 적용하도록 함.

핵심요인 2) 북극 데이터센터 - 증가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의존도와 전력소비량으로 인한 기회를 활용. 특히 3개 대륙과의 근접성, 재생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낮은 기후로 냉각 비용 절감효과를 가지고 있는 북극은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에 최적임.

핵심요인 3) 획기적인 투자 -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용도 인프라 민간 투자 사업을 활용. 광업에서 심수항 건설까지 대규모 사업일수록 연결성과 주요 인프라 등이 확대됨.

핵심요인 4) 개선, 경쟁력, 경제적 기회 - 다양한 북극 비즈니스 업계, 정부, 학계,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극 지역사회의 규모의 문제를 극복

핵심요인 5) 통신산업 모델 - 북극의 통신업체들이 제공 가능한 다양한 통신 모델들을 이해. 특정 모델만이 북극의 모든 산업 요구사항들을 충족할 수 없으며, 다양한 모델들을 활용한 접근방식이 필요함.

(<https://arcticeconomiccouncil.com/five-pillars-of-arctic-connectivity/>)



# 북극소식 북극국가 정책



## 미국

### 알래스카대학 예산 삭감으로 기후변화 연구 위기 직면 (2019.7.30.)

알래스카의 마이크 던레비(Mike Dunleavy) 주지사는 4억 4,400만 달러 규모의 주 예산 삭감안을 제안한 가운데, 이 제안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알래스카대학(University of Alaska)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의 41%(약 1.3억 달러)가 감소하게 됨.

이는 알래스카대학 전체 예산의 약 1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와 데이터의 질이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함. 지난 60년간 알래스카의 기온은 미국 본토보다 2배 이상인 화씨 3도 상승하였고, 해안 침식, 산불 등의 기후변화 영향이 증가하고 있음.

예산 삭감에 따른 영향은 알래스카로 국한되지 않으며, 미국 전역에 있는 연구자들이 북극의 기후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알래스카대학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대학의 역량이 줄어들면서 국가 기후연구가 위협을 받게 될 것임.

다만 많은 대규모 연구사업의 예산이 미 국립과학재단 등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대학 소속 과학자들이 받는 예산 삭감 영향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말 알래스카대학 이사회는 '재정위기'를 선언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종신교수의 해고, 일부 캠퍼스 축소화 또는 폐쇄 등의 대대적인 비용절감 조치가 예고되고 있음.

알래스카주의 예산위기는 2014년 유가가 폭락하면서 촉발됐음. 알래스카종신기금은 석유산업 수익금으로 총당되고, 매년 배당금으로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나눠졌음. 석유 수익이 줄어들면서 배당금도 낮게는 1,000달러로 줄어들었으나, 던레비 주지사는 알래스카 대학 예산 삭감 등을 통해 배당금을 주정부 역사상 최고치인 3,000달러로 올릴 계획임.

(<https://www.hcn.org/articles/climate-change-research-threatened-by-university-of-alaska-budget-cuts>)

### 알래스카에 가장 더운 여름이 왔다. (2019.7.30.)

알래스카의 전 지역 기온이 4월 25일 이후부터 평균을 상회하는 기온을 기록했음. 6월 28일 이후에는 가장 긴 기간 동안 섭씨 영상의 기온을 기록하고 있음.

앵커리지 국제공항은 기록상 처음으로 섭씨 32도를 기록했으며, 알래스카는 이번 7월이 기록상 가장 따뜻하고 습한 달로 기록될 전망이다. 보퍼트해와 축치해의 얼음 면적 또한 기록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음.

([https://www.washingtonpost.com/weather/2019/07/30/alaskas-summer-heat-has-been-basically-off-charts/?noredirect=on&utm\\_term=.0a80c1d8e265](https://www.washingtonpost.com/weather/2019/07/30/alaskas-summer-heat-has-been-basically-off-charts/?noredirect=on&utm_term=.0a80c1d8e265))

# 북극소식 북극국가 정책



## 캐나다

### 일본, 캐나다 캠브리지 만에서 미래 북극연구 추진 검토 (2019.7.7.)

일본 극지연구소(NIPR)가 북극 연구와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 과학자 및 이누이트 원주민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일본 NIPR의 자연과학자와 인류학자 등으로 구성된 10명의 연구원들이 캐나다 캠브리지만을 방문하여 일본의 과거와 미래 극지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지역사회 회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음.

일본 대표단은 이누이트 지식이 미래 연구사업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해하는데 관심이 있음을 강조했다며, NIPR은 향후 5년 과학연구계획의 주제를 곧 확정할 계획임.

캐나다와 일본 정부는 1986년 과학·기술 협력 협정에 서명했으며, NIPR는 최근 캠브리지 만에서 범북극 동위원소 모니터링 네트워크, 이누이트 지식과 ‘현대과학’ 간의 비교연구, 일본 오츠크해와 캠브리지만의 바다얼음 비교연구 등을 주도하고 있음.

앨랑 러클레어(Alain Leclair) 캐나다 극지연구소 과학기술부장은 “캐나다에서 모든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며, 일본과 협력함으로써 지식 공백을 메꿀 수 있고 북극환경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으며, 캐나다 연구자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일본이 해빙생화학 연구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언급하며 “모두에게 이득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여름 CHARS 캠퍼스에 캐나다 과학자뿐만 아니라 스페인, 뉴질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한국 과학자들이 방문할 계획임.

작년에는 CHARS 캠퍼스를 방문하는 연구자들이 총 23개 사업을 운영했으며, 이 중 4분의 1이 9개국에서 운영된 연구사업이었음.

(<https://www.cbc.ca/news/canada/north/japan-chars-arctic-cambridge-bay-1.5202335>)

# 북극소식 북극국가 정책



## 캐나다

### 화웨이 캐나다, 북극 외딴 지역에 고속 인터넷망 구축 추진 (2019.7.23.)

화웨이 캐над아가 현지기업인 Ice Wireless사 및 Iristel사와 협력하여 2025년까지 캐나다의 외딴지역 70여 곳에 4G 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임.

구체적으로 화웨이는 북극지역 20개의 지역사회와 북동부 퀘벡지역의 50개 지역사회에 4G 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뉴펀들랜드 및 라브라도르지역에도 고속 인터넷망 구축 계획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있음.

화웨이 캐나다 부대표는 “캐나다에서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1,100여명을 고용하고 있음. 5G 무선 인터넷기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3G 또는 4G LTE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많은 외딴지역이 있음. 이번 이니셔티브는 캐над아가 2030년까지 모든 캐나다인들이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릭 리(Eric Li) 화웨이 캐나다 대표는 “캐나다 어디에 거주하든지 경제성이 없더라도, 모두 고속 인터넷 연결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음.

현재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국가들은 5G 네트워크에 화웨이 장비 사용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고려 중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캐나다는 화웨이 창업자의 딸 멩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를 캐나다에서 체포하여 중국과 마찰을 빚어 왔음.

미국의 통신망 사업자들은 대부분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가운데, 미 FCC는(연방통신 위원회) 화웨이를 포함한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의 서비스 또는 장비를 구매하는데 보편적서비스기금(USF) 재원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일부 소규모 지방 통신 업체들은 우려를 표했음.

(<https://www.fiercewireless.com/wireless/huawei-partners-local-carriers-to-bring-4g-to-remote-parts-canada>)



# 북극소식 북극국가 정책



## 러시아

### 북극 항로의 딕손 (Dikson)항, 외국 선박 입항 허가 (2019.6.26.)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Krasnoyarsk Krai) 행정부는 영내 북극항로의 항구 중 하나인 딕손(Dikson) 항의 외국 선박 입항을 허가하는 명령을 발표하였음. 크라스노야르스크 측은 행정 명령에서, “외국 선박 입항 결정의 목표는 북극항로의 물동량 증가, 환적 역량 확대를 통한 국제항만시설로서 딕손 항의 지위 상승”임을 명시하였음.

이외에도 지방 정부는 항만물동량 증가를 위한 사업을 구상 중인데, 대표적으로 딕손 항에 파야흐스코예(Paiyakhskoye) 유전을 위한 석유 터미널과 렘베로바(Lemberova) 강변에 위치한 시라다사이스코예(Syradasayskoye) 탄전을 위한 석탄 터미널 추가 건설 등이 있음.

(<https://ru.arctic.ru/news/20190626/868491.html>)

### 러시아 재무부, 로스네프트 회장의 북극 개발 세제혜택 제안에 회의적인 반응 (2019.7.16.)

알렉세이 사자노프(Alexey Sazanov) 러시아 재무부 조세관세정책국장은 북극 개발 세제혜택 법안에 대해 “감소하는 재정수입에 관한 세제혜택 재원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아직 명확히 규정된 바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음.

〈베도모스티(Vedomosti)〉지는 이를 이고르 세친(Igor Sechin) 로스네프트(Rosneft) 회장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에게 전달한 “2조 6,000억 루블(한화 약 48조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액이 5조 루블(한화 약 93조 8,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서한에 대한 재무부의 답변이라고 보도하였음. 이 법안은 투자자들을 위한 특별 조치를 담았으며, 극동개발부가 발의한 바 있음.

사자노프 국장은 첫 해 200~300억 루블(한화 약 3,800~5,600억 원) 규모의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재정부는 2024년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석유가스 산업 비중이 0.5%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렇기 때문에 세제혜택에 관한 요청에는 자원 마련방안을 필히 간구해야 하며, 현재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음.

(<https://ru.arctic.ru/news/20190716/869822.html>)

# 북극소식 북극국가 정책



## 러시아

### 러·일 경제협력, 야말 반도에서 첫 시동 (2019.7.2.)

사이토 다이스케(齋藤大輔) 러시아 & NIS무역회(Japan Association for Trade with Russia & NIS, ROTOBO) 모스크바 대표부장과 하세 나오야(長谷直哉) ROTOBO 선임 연구원을 포함한 일본 대표단이 야말로네네츠 자치구(Yamalo-Nenets Autonomous Okrug) 주도 살레하르드(Salekhard)를 방문하였음.

알렉산드르 마자로프(Alexander Mazharov) 자치구 부지사 겸 대외관계국장은 일본 측의 방문을 협력의 첫걸음이라 환영하며, 사슴 사육을 비롯한 지역의 청정 농업을 홍보하고 협력을 제안하였음. 이에 사이토 소장 또한 자치구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자치구의 답방을 기대한다고 화답하였음. 일본 대표단은 7월 4일까지 자치구 상공회의소, 극지연구소 및 노비 우렌고이(Novy Urengoy) 가스전을 방문하였음.

러시아 & NIS 무역회는 법인으로서 1967년 <소련&동유럽 무역회>로 창설되었으며, 발트 3국을 제외한 12개 구소련 구성국 및 몽골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음. 무역회에는 200여개의 일본 기업, 직능단체, 은행, 투자회사 및 지자체 등이 가입한 바 있음.

([http://www.arctic-info.ru/news/ekonomika/YAponskiy\\_biznes\\_delaet\\_pervye\\_shagi\\_k\\_so\\_trudnichestvu\\_na\\_YAmale/](http://www.arctic-info.ru/news/ekonomika/YAponskiy_biznes_delaet_pervye_shagi_k_so_trudnichestvu_na_YAmale/))

### 아키모프 부총리, “축치 자치구 광섬유 케이블 설치 완료까지 위성통신 보조금 지원” (2019.7.23.)

막심 아키모프(Maxim Akimov) 부총리는 축치 자치구(Chukotka Autonomous Okrug) 주도 아나디르(Anadyr)를 방문, 로만 코핀(Roman Kopin) 자치구 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관계 인사가 참여한 자치구 인터넷/모바일 개발 회의에서, 케이블 설치가 완료되는 2023년까지 정부의 위성통신 지원을 언급하였음. 현재도 축치 자치구는 러시아 내에서 유일하게 위성통신을 사용하고 있음.

회의에서는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Petropavlovsk-Kamchatsky)-아나디르 해저 케이블 건설 방안과 북극 항로 빌리비노(Bilibino)와 페베크(Pevek)를 경유, 마가단(Magadan)과 자치구를 연결하는 송전선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그 외에도 러시아 통신사인 <메가폰(Megafon)>이 주관하는 “프랑크푸르트(Frankfurt)-도쿄(Tokyo)” 지선 사업과의 연계 또한 제안되었음.

부총리는 “광섬유 케이블은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함으로써 교육/미디어 콘텐츠 제공, 은행 서비스 및 민원행정시스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코핀 지사 또한 “주민 부담 또한 경감될 것”이라고 이에 동의하였음.

([http://www.arctic-info.ru/news/obshchestvo/Maksim\\_Akimov\\_Pravitelstvo\\_RF\\_budet\\_su\\_bsidirovat\\_svyaz\\_na\\_CHukotke\\_do\\_tekh\\_por\\_poka\\_v\\_okrug\\_ne\\_pridye/](http://www.arctic-info.ru/news/obshchestvo/Maksim_Akimov_Pravitelstvo_RF_budet_su_bsidirovat_svyaz_na_CHukotke_do_tekh_por_poka_v_okrug_ne_pridye/))





 노르웨이

**노르웨이 최신 연구선  
얼음 문제로 북극점  
조사 조기 종료  
(2019.7.22.)**

노르웨이의 최신 극지방 연구선인 “크론프린스 하콘(Kronprins Haakon)”이 기존 계획보다 일찍 탐사를 끝마칠 예정임. 3번째 항해인 이번 항해는 7월 3일 노르웨이 트롬소(Tromso)를 출발해 스발바르 북부해역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북극점에 도달한 후 다시 트롬소로 돌아올 예정이었음. 하지만 얼음두께가 기존 예상보다 더 두꺼워져 북극점 도달이 어려워져서 예정보다 일찍 항해를 마치게 되었음.

이 연구선은 지난 8월 항해를 시작했으며, 올해 1월에는 남극 대륙 탐사를 완수하였으며, 연구선 건조에는 15억 크로나(1억7,500만 달러)가 투자되었음.

(<https://www.arctictoday.com/for-norways-newest-icebreaker-its-almost-to-the-pole-and-back/>)

 핀란드

**핀란드-에스토니아  
철도 터널, 중국  
건설사와 계약  
(2019.7.9.)**

핀란드 수도 헬싱키와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을 연결하는 해저 철도 터널 프로젝트가 중국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했음. 이 프로젝트는 사업가 Peter Vesterbacka가 이끄는 프로젝트로 계약 체결로 터널 건설에 한 발짝 더 나아감.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피니스트베이 지역 개발(Finest Bay Area Development)의 피터 베스테르바카(Peter Vesterbacka)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중국 철도 그룹(China Railway Group Limited, CREC)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CREC사는 철도 프로젝트의 지하 굴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업으로 중국에 18,000km가 넘는 철도 터널을 건설한바 있음.

이 프로젝트는 2024년 말까지 100km 터널 건설의 완공과 양국 수도 간 철도로 20분 거리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 중국과의 계약체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https://thebarentsobserver.com/en/industry-and-energy/2019/07/helsinki-tallinn-tunnel-deal-set-be-inked-chinese-construction-company>)

# 북극소식 북극국가 정책



## 중국

### 중국의 첫 국산 극지 탐험 크루즈, 장수성에서 시험 운항 (2019.7.12.)

난통 해사국 소식에 따르면, 중국이 자체적으로 처음 건조한 극지 탐험 크루즈 “초상극지크루즈 1호”가 11일에 장수성 하이먼(海门)에서 시험 운항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음. 이는 중국이 크루즈 건조에 있어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을 의미함.

본 크루즈는 길이 104.4m, 너비 18.4m, 총무게 약 8천 톤으로 객실은 135개, 설계 항속은 15.5노트임. 본 선박은 오락, 휴양, 해양탐험, 수상레저 등 시설 등으로 설계되었으며, 최신 극지 규범과 여객선 안전 귀항 등의 관련 기준을 만족하였음.

시험운항 전에, 난통 해사국은 본 선박의 선박문서, 항해 도서자료, 오염방지설비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음.

난통 해사국은 계획에 따라 본 선박이 7월 19일 시험운항을 마치고 장수성 하이먼 부두로 귀항했다고 밝혔음. 관련 기술자들은 본 선박의 시험운항 중에 발견된 문제에 대해 개선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금년 9월에 진수될 예정임.

([http://www.xinhuanet.com/tech/2019-07/12/c\\_1124746870.html](http://www.xinhuanet.com/tech/2019-07/12/c_1124746870.html))

### 쉐룽 2호, 인도 완료 (2019.7.12.)

중국 자연자원부 소식에 따르면, 7월 11일, 중국이 자체적으로 건조한 극지과학연구쇄빙선 “쉐룽2”호가 상하이에서 순조롭게 인도되었음. 이는 중국 극지탐사 및 연구에 있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을 의미함.

“쉐룽2”호 극지과학연구쇄빙선 건조 사업은 중국 자연자원부 소속의 중국극지연구센터에서 조직해 실시한 것으로, “국내외 공동 설계, 국내 건조”의 사업모델에 따라, 핀란드의 아커(Aker) 북극유한공사에서 담당하 기본 설계와 중국선박공업그룹공사 제708연구소가 설계를 공동으로 진행했고, 장난(江南) 조선(그룹)유한책임공사 책임하에 건조하게 되었음.

“쉐룽2”호는 선박 길이 122.5m, 너비 22.32m, 흘수는 7.85m로 설계되었으며, 1만 3,996톤급임. 항속은 12~15노트, 항속력은 2만 해리, 자급력 60일이며, 2~3노트의 항속으로 빙하 두께 1.5m와 눈 두께 0.2m 조건하의 쇄빙연속운항 진행이 가능함.

“쉐룽2”호는 글로벌 운항능력을 갖고 있으며, 무제한의 운항구역 항해 능력을 갖추고 있음. 본 선박은 국제 뉴 제너레이션 시찰선박의 기술, 기능 수요, 녹색 환경보호 이념 등을 융합한 복합체로서 선수, 선미 양방향 쇄빙선형 설계로 되었음. 또한 전체 회전축의 전력 추진 기능과 충돌형 쇄빙 능력 등이 탑재되어 있어 극지지역에서 360° 자유 회전이 가능하며, 극지지역의 20m 두께의 당해 빙하 돌파가 가능함. “쉐룽2”호 인도 후에, “쉐룽”선과 함께 중국 제36차 남극 조사 임무를 진행하게 될 계획임.

(<http://www.oceanol.com/content/201907/12/c88216.html>)

# 북극소식 북극국가 정책



## 중국 외교부, “북극의 평화적인 발전 기대” (2019.7.18.)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월 18일 공식 브리핑에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평화적이고 호혜적인 북극 협력을 지지하고, 나아가 중러의 협력에 반하는 미국 측의 반응을 비판 한다”고 언급하였음. 이전에 마크 에스퍼(Mark Esper) 미국 국방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은 북극에서 미국에 전략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며, 북극을 통하여 미국을 겨냥하는 러시아 탄도미사일과 탐욕적인 중국의 경제 확장 전략을 비판한 적이 있음.

이에 루캉 대변인은 “중국은 이해당사국으로서 극지역에 내정간섭을 하지는 않지만, 지역 간, 또는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천명하였고, 아울러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극지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 측의 비판을 일축하였음.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 또한 북극 지역은 “평화와 안정, 그리고 생산적인 협력 공간”임을 강조하며 극지에는 어떠한 갈등의 구실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음.

(<https://ru.arctic.ru/news/20190718/870134.html>)

## 중·러 극지 음향 심포지엄 하얼빈 공정대에서 폐막 (2019.7.20.)

2019년 중·러 극지음향심포지엄(2019 China-Russia Polar Acoustics Symposium, CRPA 2019)이 하얼빈공정대학에서 7월 19일에 개최되었음. 본 회의는 하얼빈공정대, 러시아 극동연방대 공동으로 주최되었음. 러시아에서는 연방과학 및 교육부, 극동연방대학, 극동국립서비스대, 탐사기술대, 남방연방대, 극동어업기술대, 러시아과학원 극동캠퍼스 등이 참여했으며, 중국에서는 극지연구센터, 자연자원부 제3해양연구소 등 100여명의 전문가 및 학자들이 심포지엄에 참여하였음.

기조발언에서는 극지 빙하 하부의 음성전파 및 빙하 소음, 빙하소리 통신 및 신호처리, 빙하 수성시험 및 기타 극지음성학 관련 연구 의제로 특별 보고를 진행하였음. 본 회의에서는 23편의 발표가 있었으며, 극지 음성학 연구의 방향과 이슈 등의 내용이 주로 포함되었음. 또한 북극 빙하의 위치, 북극빙하 음성통신 및 시험 시스템, 북극 빙하 구역 수성 및 전기장 종합 통신 시스템, 해양빙하 원격탐지 상품 및 해양빙하 예측, 극지해양 포유동물 음성학 측량 등 문제에 있어 수준 높은 토론과 담론과 분석의 내용이 포함되었음. 극지음성학 영역의 연구는 하얼빈공정대가 해양정보영역의 과학기술 분야 건설, 인재양성, 과학연구 분야에 새로운 플랫폼을 열 계기가 되었음.

2019년 5월, 하얼빈공정대학과 러시아 극동연방대학은 공동으로 2020년 초에 다시 공동으로 진행할 해수음성학실험하기로 결정했는데, 중·러 양국이 극지음성학영역에서 더 넓고 깊은 연구를 위해 2019년 제1차 중러 극지 음성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임.

현재 중러 양국의 우호관계와 하얼빈공정대-러시아극동연방대의 협력을 기초로, 고효율의 중러 양국 극지음성학 분야 교류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었음.

([http://hlj.cnr.cn/cczl/20190720/t20190720\\_524699445.shtml](http://hlj.cnr.cn/cczl/20190720/t20190720_524699445.shtml))



## 북극소식

### 북극비즈니스/북극해항로/자원개발



#### 쉬말 석유생산자협회장 “늦어도 2035년까지 북극권 내 석유가스 개발을 늘려야” (2019.6.26.)

겐나디 쉬말(Gennady Schmal) 러시아 석유생산자협회장은 <제 6회 세계 석유 협의회 미래 지도자 포럼(6th WPC Future Leaders Forum)>에서 러시아는 늦어도 2035년까지 북극권 내 석유 및 가스 개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아울러 현재 러시아는 서류화, 기술, 설비 분야에서 준비상태가 미흡하며, 채취를 위한 학술적인 탐사연구에 대한 정부 투자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음.

현재까지 북극 대륙붕 지역에서 작업 중인 유일한 유전 지대는 <가즈프롬 석유> 사의 프리라즐롬노예(Prirazlomnoye) 유전으로, 2013년 12월에 첫 생산을 시작한 바 있음.

(<https://ru.arctic.ru/news/20190626/868483.html>)

#### 노바텍, 일본 미쓰이 -JOGMEC과 <북극 LNG-2> 지분 매매 협정 체결 (2019.7.1.)

노바텍(NOVATEK)사는 러일 정상회담 기간 중 미쓰이 그룹(三井グループ), 일본 석유천연가스·금속자원광물기구(JOGMEC)와 함께 <북극 LNG-2> 프로젝트 지분 10%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음. 일본 측은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연간 2백만 톤 규모의 가스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거래 확정은 가까운 시일 내 양국 정부의 조정 승인을 앞두고 있음.

레오니드 미헬슨(Leonid Mikhelson) 대표이사는 “일본은 50년 동안 최대 천연가스 수입국들 중 전 세계적인 천연가스 프로젝트 수행과 매매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북극 LNG-2> 프로젝트 참여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촉진시킬 것이다”며 일본 측의 참여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음.

노바텍 사는 개방형 주식회사로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2017년 <야말 LNG> 프로젝트 추진에 힘입어 세계 가스시장에 진출하였음. 또한 러시아 가스 생산의 80%,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의 15%를 차지하는 야말로네네츠 자치구(Yamalo-Nenets Autonomous Okrug)의 생산면허를 취득하였음. 주식은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고 런던증권거래소(LSE)로부터 글로벌 주식예탁증서(Global Depository Receipts)가 발급된 바 있음.

([http://www.arctic-info.ru/news/ekonomika/NOVATEK\\_Mitsui\\_i\\_JOGMEC\\_podpisali\\_dogo\\_vor\\_kupli\\_prodazhi\\_doli\\_v\\_proekte\\_Arktik\\_SPG\\_2/](http://www.arctic-info.ru/news/ekonomika/NOVATEK_Mitsui_i_JOGMEC_podpisali_dogo_vor_kupli_prodazhi_doli_v_proekte_Arktik_SPG_2/))

## 북극소식

### 북극비즈니스/북극해항로/자원개발



#### 사하 공화국 - 헤이룽장 성, 국제적 협력 확대 노력 경주 (2019.7.1.)

6월 30일 송시빈(宋希斌) 하얼빈(哈尔滨) 시장이 이끄는 헤이룽장 성(黑龙江省) 인민대표 회의 대표단이 사하 공화국(Sakha Republic) 수도 야쿠츠크(Yakutsk)를 방문하여 지역 간 협력 확대, 경제 발전 및 상품 수출 증대에 대해 논의하였음.

아이센 니콜라예프(Aysen Nikolayev) 사하 공화국 정부수반은 환영사에서 “흑룡강성은 사하 공화국과 우정으로 연결된 가장 가까운 지자체로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하 공화국의 투자 잠재력 및 임업과 관광업 투자사업 검토 준비와 석유가스채취 및 가공, 광공업 및 건설자재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음.

또한 니콜라예프 수반은 “극동과 북극 개발은 장기적으로 지자체 단위를 넘어 국가 차원에서의 협력 증진의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표현하며, 올해 6월 개최된 제6회 러중 엑스포에서 장칭웨이(张宏伟) 중국공산당 흑룡강성 당위원회 서기와 2019-2022년 장기협력계획 수립, 2004년 두 지자체 간 경제, 과학기술, 문화협력 협정체결 경험 등을 거론하며 관계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음.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두 지역 간 자매결연 체결 또한 논의되었음.

([http://www.arctic-info.ru/news/obshchestvo/YAkutiya\\_i\\_provintsiya\\_KHeyluntszyan\\_nam\\_ereny\\_rasshiyat\\_mezhregionalnoe\\_sotrudnichestvo/](http://www.arctic-info.ru/news/obshchestvo/YAkutiya_i_provintsiya_KHeyluntszyan_nam_ereny_rasshiyat_mezhregionalnoe_sotrudnichestvo/))

#### 부산광역시 - 사하 공화국 대외관계부, 경제 협력 발전 논의 (2019.7.12.)

7월 12일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광역시청 및 사설 병원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사하 공화국(Sakha Republic) 수도 야쿠츠크(Yakutsk)를 방문하였음. 한국 대표단의 방문 목적은 일련의 의료 학술세미나와 전문적인 의료분야 경험 공유 및 전수를 위한 것이었음. 사하 공화국 측에서는 가브릴 키릴린(Gavril Kirillin) 사하 공화국 대외관계국장, 이반 다닐로프(Ivan Danilov) 공화국 의회위원, 알렉산드르 콘드라신(Alexander Kondrashin) 공화국 투자유차수출진흥청장이 회의에 참석하였음.

콘드라신 청장은 한국 대표단에 사하 공화국의 투자 프로젝트, 수출 잠재력 및 러시아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인 투자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을 홍보하였음. 이에 오지한 부산경제진흥원 본 부장은 지난 2018년 의료관광 목적으로 부산을 방문한 16,000명의 외국인의 대부분이 러시아와 중국 국적자임을 언급하며, 부산이 지닌 의료관광 중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홍보하였음. 아울러 양측은 부산-야쿠츠크 간 정기항공노선 개설 등 의료 및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음.

([http://www.arctic-info.ru/news/obshchestvo/V\\_Ministerstve\\_po\\_vneshnim\\_svyazyam\\_ob\\_sudili\\_razvitie\\_ekonomicheskikh\\_otnosheniy\\_mezhdu\\_YAkutiei\\_i\\_k/](http://www.arctic-info.ru/news/obshchestvo/V_Ministerstve_po_vneshnim_svyazyam_ob_sudili_razvitie_ekonomicheskikh_otnosheniy_mezhdu_YAkutiei_i_k/))

## 북극소식

### 북극비즈니스/북극해항로/자원개발



#### 트로첸코 AEON 대표이사, “인디가 항은 2020년 착공 예정” (2019.7.16.)

로만 트로첸코(Roman Trotsenko) AEON 코퍼레이션 대표이사 겸 공동소유주는 최근 인터뷰에서 인디가(Indiga) 항 건설이 2020년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로첸코 대표는 이미 작년 11월 600억 루블(한화 약 1조 1,300억 원) 투자 준비를 완료했으며, 항만 부지에 석탄, 일반화물, 목재와 칼륨비료 터미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음.

트로첸코 대표는 설계 및 사전조사 사업부터 최선을 다해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 지원금이 부족하지만, 정부 지원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인 석탄 터미널과 소스노고르스크(Sosnogorsk)-인디가(Indiga) 철도선 건설을 진행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하지만 사업파트너인 <비탈리 유즈닌 그룹(Vitaly Yuzhnin Group)>과 일반화물 터미널 건설 합의는 진행되었으나, 철도건설에 관심을 보인 <VIS 그룹>과의 협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AEON 측은 철도 건설을 제외한 민간투자 규모를 약 1,000억 루블(한화 약 1조 8,8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철도 건설에는 약 1,600억 루블(한화 약 3조 32억 원)이 추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러시아 철도공사 출자 또는 민간 컨소시엄 조직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아울러 트로첸코 대표는 예니세이(Yenisei) 강 하구에서 석탄 환적용 선박 제작을 위해 소브콤플로트(Sovcomflot)와도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https://ru.arctic.ru/news/20190716/869912.html>)





### 중러 천연가스 협력 새로운 단계 진입: 중국석유 북극 LNG-2 프로젝트 구매 절차 완료 (2019.7.24.)

7월19일, CNPC와 러시아 노바텍은 모스크바에서 Arctic LNG-2 프로젝트 10% 지분의 구매 절차를 순조롭게 마무리하였음. 이는 중러 양국이 북극 천연가스 협력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CNPC가 야말 LNG 프로젝트 다음으로 북극지역에서 제2의 업다운 스트림 일체화 대형 LNG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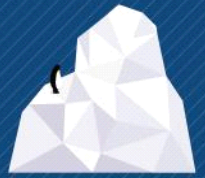
Arctic LNG-2 사업은 러시아 기단(Gydan) 반도에 위치하며, 연 생산 1,980만 톤의 LNG 생산을 계획하고 있음. 본 프로젝트는 천연가스 개발, 액화, 대외운송 등의 사업이 포함되며, 채굴장, 가스보관시설, 천연가스 액화공장, 중력식 플랫폼 등의 건설이 필요함. 천연가스 액화 사업은 린더(Linde) 그룹의 MFC 액화 방식을 채용할 예정이며, 주로 액화시설, 저장 및 운송시설, 선박 선적 등은 중력식 플랫폼 위에 모두 설치할 예정임. 본 프로젝트는 3개의 액화라인을 설계하고 있고, 하나의 라인 당 연 660만 톤 생산 예정이며, 각각 2023년, 2024년, 2026년에 가동 예정임.

Arctic LNG-2 사업 중, 러시아 노바텍 회사가 60%의 지분을 갖고, 중국석유, 중국해유, 프랑스 토탈, 일본 미쓰이그룹 등이 각각 10%의 지분을 차지함.

Arctic LNG-2 사업은 야말반도 LNG 사업을 거울삼아 모듈 건설, 계약 전략, 현장 공사, 판매 및 해운 등의 분야에서 귀중한 경험을 얻었음. 지속적인 프로젝트 비용 절감, 상품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궁극적으로 고질량, 고효율, 고표준의 Arctic LNG-2 사업 운영을 실현하고자 함. 야말 LNG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 공헌해왔던 중국해공제조기업이 Arctic LNG-2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중러 양국의 북극권 내 제2의 천연가스 관련 전 산업사슬 협력 프로젝트로서, Arctic LNG-2 사업은 야말 LNG와 함께 “빙상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이 될 것으로 보임. 이는 러시아 에너지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중국의 청정 에너지 공급처 확보 및 다원화 실현, 에너지 구조 조정 가속화, 세계 천연가스 공급-수요 시장 발전, 우수한 청정에너지 공급 실현 등에 일조하게 될 것으로 보임.

(<http://www.sasac.gov.cn/n2588025/n2588124/c11790027/content.html>)



### 남극 빙하 돌이킬 수 없는 속도로 녹는다. (2019.7.9.)

남극 대륙 빙하의 녹는 속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 지구온난화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남극 빙하 5개에서 발생하는 빙하의 손실률은 6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보다 다섯 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남. 일부지역에서는 빙하두께가 100m 이상 감소하는 등 빙하가 해안에서 남극대륙 내부로 손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연구책임자인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 교수는 만약 빙하의 불안정성이 촉발된다면, 기온 상승이 멈추더라도 약 1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빙하 손실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 광범위한 빙하 손실은 600년 후에 시작될 것이지만 이는 지구 온난화 속도와 불안정성의 특성에 따라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였음.

한편 서남극 빙하의 완전한 손실은 지구 해수면을 약 5m(16피트) 증가시켜 전 세계 해안 도시들이 잠길 것으로 예상됨.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jul/09/glacial-melting-in-antarctica-may-become-irreversible>)

### 츠산(赤山)그룹, 중국 국내 최대 남극 크릴새우 시범 기지 건설 (2019.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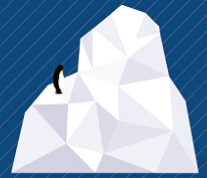
산둥 츠산 그룹은 남극 크릴새우 국가전략 자원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발표하였음. 중국 수산과학원 황해 산학연협력 기지의 위탁에 따라, 현대화된 종합형 남극 크릴새우 산업 특색 단지 건설에 나설 계획임.

본 프로젝트는 8억 위안이 투자 계획으로, 계획 면적은 150묘, 총 건물 면적은 9.5만㎡로 계획되었음. 주요 건설공간은 남극 크릴새우 가공지역, 콜드체인 물류창고, 첨단 바이오제품 연구개발 센터 및 산업화 등 세 분야의 구역으로 건설됨. 본 기지는 글로벌 선진 스마트화 생산라인으로 건설될 것이며 주요 상품은 건강식품, 첨단바이오 제품 등 크게 두 종류의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보임.

본 프로젝트는 2021년 12월 완공 예정이며, 3년 내 중국 국내 최대의 현대화 남극 크릴새우 종합 개발 및 산업화 시범기지로 건설할 예정임. 또한 남극 크릴새우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 가능한 산업사슬을 건설 계획임.

본 기지가 준공 후 운영될 경우, 크릴새우 분말은 연간 약 1만 톤, 크릴새우 오일 500톤, 크릴새우 해양식품은 2만톤, 아스타크산틴, 크릴새우 효소, 크릴새우 펩타이드 등 첨단 해양 바이오 약품 중간품은 50톤 등을 생산하게 될 예정이며, 연간 총생산가치는 약 1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임.

([http://www.jjckb.cn/2019-07/17/c\\_138234350.html](http://www.jjckb.cn/2019-07/17/c_138234350.html))



## 중국, 적극적인 남극 과학탐사 및 남극기지 참여로 러시아 추월 (2019.7.23.)

러시아 매체는 중국 “쉐룽”호의 남극 탐사 수가 북극 탐사 수의 2.5배라는 점에 주목하며 중국이 남극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점에 대해 분석하였음.

먼저, 남극은 광활한 면적의 지역으로, 세계 육지 면적의 10%에 달함. 아직 알려지지 않은 대량의 자원을 포함해 다량의 자연자원이 비축되어 있음. 다음으로, 남극은 현재 중립지역에 속해 무주지에 해당함.

중국은 1983년에 남극조약에 가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남극연구에 참여하였음.

21세기의 문턱에 들어선 중국은 남극 내 과학기술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그 기지보유 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현재 남극 내 중국 기지는 이미 4곳이며, 현재 다섯 번째 기지는 건설 중에 있음. 중국은 남극 탐사기지 보유에서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인원 파견수에는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음. 러시아는 현재 7개의 남극 탐사기지가 있지만, 러시아의 남극 내 활동은 약 2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음. 1820년, 러시아 항해가는 이 빙하로 덮인 대륙을 발견한 바 있음. 현재, 중국이 비록 제5의 탐사기지 건설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중국의 첫 번째 탐사기지는 34년 전 1985년에야 완공이 되었음.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의 추이를 보면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이 남극 과학기지 수와 질적 부분에서도 러시아를 앞서게 될 것으로 보임.

(<http://baijiahao.baidu.com/s?id=1639799446989489490&wfr=spider&for=pc>)

## 독일 연구진, 지구 온난화로 녹고 있는 남극에 차갑고 탈염된 바닷물 뿌려 빙하 키우는 방안 발표 (2019.7.23.)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연구진은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를 통해 지구온난화로 녹고 있는 남극 서부지역 빙하에 인간의 힘으로 차가운 바닷물을 뿌려 빙하를 두껍게 만들자는 방안을 내놓았음.

연구진의 아이디어는 약 1만 2000개의 풍력 터빈에서 발생시킨 에너지로 펌프를 돌려 바닷물을 남극 서부 지역에 눈처럼 흩뿌리자는 제안임. 인류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대규모 해양 프로젝트로 소요되는 비용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뉴욕과 같은 해안 도시 하나를 잃는 것보다 적은 비용일 것이라고 밝혔음.

연구진의 계획대로 남극 서부에 인위적으로 뿌린 바닷물을 얼려서 쌓으면 대륙빙하가 두꺼워지고, 이 때문에 빙하 꼬트머리에 해당하는 빙봉이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는 일이 적어질 것으로 기대됨.

(<https://www.forbes.com/sites/scottsnowden/2019/07/23/scientists-propose-spraying-trillions-of-tons-of-frozen-desalinated-seawater-onto-antarctica/#48e6ef1f6e7d>)



# 이슈분석

## 북극 아카데미, 미래세대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성장

최근 북극에서 '지속가능한 개발(SDG)' 논의가 뜨겁다. 중요한 북극회의나 학술행사에서 북극에서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주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는 북극의 문제가 전 지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도 고려해야 할 세대 간 문제라는 점 때문이다. 북극에서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중요한 이슈가 미래 세대의 교육이며, 젊은 세대 간 교류와 협력의 확대이다. 인종, 종교, 국가, 지역, 문화를 초월해서 북극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발생하는 북극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활동들이 국가 간 북극협력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북극아카데미가 주목받고 있다. 북극아카데미는 2015년부터 매년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북극대학연합(UArctic)\*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북극권 국가 학생들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류와 협력의 장이다. 올 해 5회를 맞이하여, 지난 7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 동안 북극권 국가에서 온 23명의 학생과 10명의 우리나라 학생이 함께 북극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젊은 세대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북극대학연합(UArctic): 180여개 대학·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북극권 최대의 학술교류네트워크

〈사진〉 제5회 북극아카데미 개막식



출처: KMI



## 이슈분석

올 해는 수교 60주년을 맞은 노르웨이, 덴마크의 주한 대사를 포함해 캐나다, 핀란드 대사관 고위급이 참석해 직접 자국의 북극정책에 대해 강연을 했다. 특히 정부 대표 간 회의인 ‘한-러 북극협의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한 러시아 북극협력 대사는 북극아카데미에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러시아의 북극정책을 강연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국내외 북극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연진은 북극 거버넌스, 북극 기후변화, 북극과학을 비롯해 올 해 10주년을 맞는 우리나라 쇄빙 연구선 아라온호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북극 아카데미 참가 학생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극문제에 대해 직접 발표하고 토론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참석자들이 한국과 북극권 문화를 소재로 직접 제작한 영상물을 공유하는 ‘북극아카데미 비디오 콘테스트’를 처음으로 개최해 북극과 한국에 대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높였다. 북극아카데미를 수료한 참가자들에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북극대학(UArctic) 공동 명의의 수료증이 주어졌다.

북극아카데미는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Observer) 13개국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개최하고 있는 북극권과 비북극권 간 차세대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으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북극이사회에서 우수 협력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북극권 협력을 잇는 든든한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북극권 국가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 등 인근 동북아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북극아카데미 성공 사례를 뒤따라 유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북극아카데미는 옵서버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북극역량을 대외에 확산하고,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5년째를 맞는 북극아카데미가 실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까지 총 153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는데, 상당수의 수료자와 참석자들이 자국, 북극이사회, 관련 단체에서 북극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결정자로서, 연구자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일례로 제3회 북극아카데미에 참석했던 아키 마틸다(Aki-Matilda Hoeghdam) 학생은 22세의 나이로 그린란드를 대표하는 최연소 덴마크의회 의원으로 올 해 선출되었다. 또한 지난 해 제4회 북극아카데미 강연자로 참석해 인연을 맺은 북극포럼(Northern forum) 사무국장이었던 ‘미하일 포고다예프(Mikhail pogodaev)’씨가 올 해 러시아 사하공화국 북극업무를 총괄하는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올 해의 경우 북극대학연합을 통해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가 50명을 훌쩍 넘어 거의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북극아카데미의 성과와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북극아카데미의 성과가 확산되고, 북극아카데미 수료생과 참석자들이 북극을 기반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극 지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입지는 커질 것이며,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북극정책 또한 든든한 지원 하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내년에 개최될 북극아카데미가 벌써부터 기대되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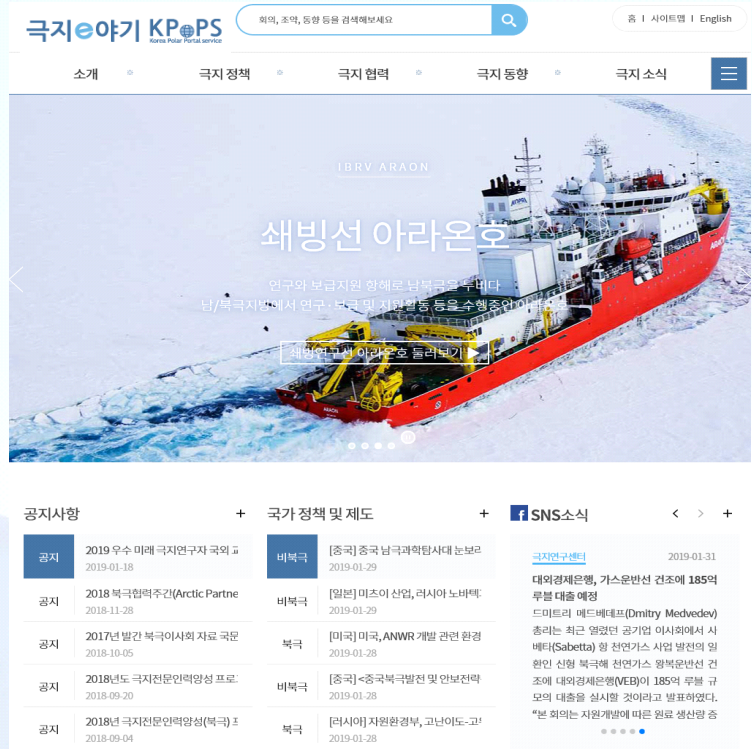
김민수 센터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



극지e야기(KPoPS)는 북극과 남극의 사회, 경제, 인문, 자연, 원주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극지정보포털입니다.

<http://www.koreapolarportal.or.kr/>



KMI 극지연구센터 페이스북은 북극 및 남극과 관련된 해외 주요 최신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KMI 극지연구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facebook.com/kmipolar/>

